

플 뿌 리 창 업 Theme

다시 찾아 온 벤처의 봄날

벤처업계가 본격적인 재도약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벤처 부활의 청신호가 각종 지표와 실적을 통해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벤처기업 숫자가 1만개를 돌파하고, 연매출 1000억을 기록한 '1000억 클럽' 기업도 70~80개로 예상되고 있다. 2004년 12월 정부의 '벤처 활성화 대책'이 발표된 후 벤처업계는 지난해 재도약의 기반을 다졌다는 평가와 함께 새로운 '봄날'을 맞았다.

벤처기업 1만개 돌파 국내 벤처기업 숫자가 1만개를 넘어섰다. 지난 2월 28일 벤처기업인증을 받은 기업 수는 1만 70여 개로 지난 2002년 6월 이후 3년 6개월 만에 다시 1만개를 돌파한 것이다. 국내의 벤처기업은 1998년 벤처확인제가 도입된 이후 2001년 7월 처음으로 1만개를 넘어섰으나 2003년 7700여 개까지 그 숫자가 줄었다. 그동안 벤처기업의 숫자는 벤처의 활황 및 침체의 사이클과 그 궤를 같이해왔다는 점에서 '벤처 1만개 재돌파'는 그 의미가 크다.

벤처에도 봄기운

벤처기업들이 봄 가지개를 켜며 꿈틀대기 시작했다. 경기는 아직 얼어붙어 있지만 얼음장 밑에서 벤처기업 움직임은 활발하다. 2000년 거품 붕괴, 지난해 분식회계 파문 등에도 불구하고 '리얼 벤처'들은 묵묵히 뛰어오를 준비를 하고 있다...〈중략〉...코스닥시장 활황세도 벤처에 대한 기대를 보여준다.

2004년 말 3800이었던 코스닥지수는 현재 2배 가까운 670대를 보이고 있다. 2005년 말 700선을 넘어섰던 것에 비하면 좀 꺾이긴 했지만 호조세다. 올 들어 코스닥 상장심사 청구업체만 해도 10개다...〈후략〉〈매일경제 3월 14일자 서면〉

코스닥 활황세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코스닥시장의 활황세와 안정세도 벤처 부활을 기대하게 한다. 2004년 말 코스닥지수는

벤처 1만개 돌파 '부활의 노래'

3년 7개월만에 - 제조업종이 70% 차지

벤처기업 수가 3년 7개월 만에 다시 1만 개를 돌파했다. 중소기업청은 25일 9월 현재 통계자료로 확인한 결과 수가 1만7천7백여 개를 돌파했다고 발표했다.

1998년 벤처창업자가 도입된 뒤 벤처기업 수는 2004년 4월 처음으로 1만 개를 돌파하고 같은 해 5월 1만2천여 개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벤처 자본이 부족해서 벤처기업 수는 계속 1천여 개를 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2004년 11월과 2005년 1월 2만 개 이상 돌파에 다시 한차례 도전했다고 통계청은 밝혔다.

벤처 기업총액 역시 3년 7개월 만에 처음으로 1천억 원을 돌파한 결과 일평균 1억 2천만 원의 규모로 집계됐다.

벤처기업 수가 3년 7개월 만에 다시 1만 개를 돌파했다. 중소기업청은 25일 9월 현재 통계자료로 확인한 결과 수가 1만7천7백여 개를 돌파했다고 발표했다.

1998년 벤처창업자가 도입된 뒤 벤처기업 수는 2004년 4월 처음으로 1만 개를 돌파하고 같은 해 5월 1만2천여 개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벤처 자본이 부족해서 벤처기업 수는 계속 1천여 개를 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2004년 11월과 2005년 1월 2만 개 이상 돌파에 다시 한차례 도전했다고 통계청은 밝혔다.

벤처 기업총액 역시 3년 7개월 만에 처음으로 1천억 원을 돌파한 결과 일평균 1억 2천만 원의 규모로 집계됐다.

벤처에도 봄기운

30여만 매출 1000억 넘어...벤처기업 1만개 돌파

벤처기업 1만개 돌파... 30여만 매출 1000억 넘어... 벤처기업 1만개 돌파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벤처수 보유수 45만 4천여 개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벤처기업의 매출도 30만 7천여 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벤처기업의 매출도 30만 7천여 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년 적자내던 벤처 모처럼 보너스

벤처기업 1만개 돌파... 30여만 매출 1000억 넘어... 벤처기업 1만개 돌파

벤처기업 1만개 돌파... 30여만 매출 1000억 넘어... 벤처기업 1만개 돌파

다시오는 '벤처의 봄'

벤처기업의 부활이 시작되고 있다. 벤처기업의 수가 3년 7개월 만에 다시 1만 개를 돌파했다. 중소기업청은 25일 9월 현재 통계자료로 확인한 결과 수가 1만7천7백여 개를 돌파했다고 발표했다.

1998년 벤처창업자가 도입된 뒤 벤처기업 수는 2004년 4월 처음으로 1만 개를 돌파하고 같은 해 5월 1만2천여 개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벤처 자본이 부족해서 벤처기업 수는 계속 1천여 개를 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2004년 11월과 2005년 1월 2만 개 이상 돌파에 다시 한차례 도전했다고 통계청은 밝혔다.

벤처 기업총액 역시 3년 7개월 만에 처음으로 1천억 원을 돌파한 결과 일평균 1억 2천만 원의 규모로 집계됐다.

벤처수출 100억달러 돌파

작년 103억2500만달러 기록...10년 만에 '해저'

벤처수출 100억달러 돌파... 작년 103억2500만달러 기록... 10년 만에 '해저'

벤처수출 100억달러 돌파... 작년 103억2500만달러 기록... 10년 만에 '해저'

- ① 동아일보 3월 7일자 B1면
- ② 매일경제 3월 14일자 A1면
- ③ 매일경제 3월 14일자 A3면
- ④ 헤럴드경제 3월 21일자 1면
- ⑤ 전자신문 3월 7일자 2면
- ⑥ 한겨레 3월 3일자 15면

벤처 다시 봄날 오나

업체 1만개 넘어...매출 1천억 돌파 70곳 추정
게임·IT 고유영역 구축...메디슨 등 1세대 부활
구조조정 마무리 경쟁력 갖춰...투자금도 늘어

한때 거품 붕괴로 추락했던 벤처기업이 3월의 도약기를 맞고 있다. 중소기업청은 25일 현재 통계자료로 확인한 결과 수가 1만7천7백여 개를 돌파했다고 발표했다.

1998년 벤처창업자가 도입된 뒤 벤처기업 수는 2004년 4월 처음으로 1만 개를 돌파하고 같은 해 5월 1만2천여 개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벤처 자본이 부족해서 벤처기업 수는 계속 1천여 개를 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2004년 11월과 2005년 1월 2만 개 이상 돌파에 다시 한차례 도전했다고 통계청은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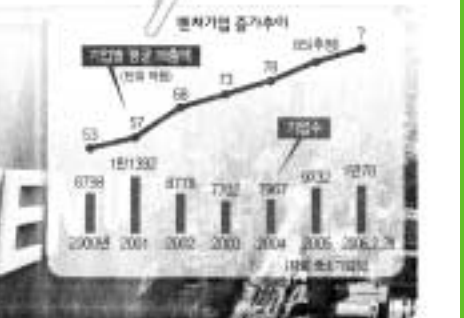
벤처 기업총액 역시 3년 7개월 만에 처음으로 1천억 원을 돌파한 결과 일평균 1억 2천만 원의 규모로 집계됐다.

벤처기업의 부활이 시작되고 있다. 벤처기업의 수가 3년 7개월 만에 다시 1만 개를 돌파했다. 중소기업청은 25일 9월 현재 통계자료로 확인한 결과 수가 1만7천7백여 개를 돌파했다고 발표했다.

1998년 벤처창업자가 도입된 뒤 벤처기업 수는 2004년 4월 처음으로 1만 개를 돌파하고 같은 해 5월 1만2천여 개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벤처 자본이 부족해서 벤처기업 수는 계속 1천여 개를 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2004년 11월과 2005년 1월 2만 개 이상 돌파에 다시 한차례 도전했다고 통계청은 밝혔다.

벤처 기업총액 역시 3년 7개월 만에 처음으로 1천억 원을 돌파한 결과 일평균 1억 2천만 원의 규모로 집계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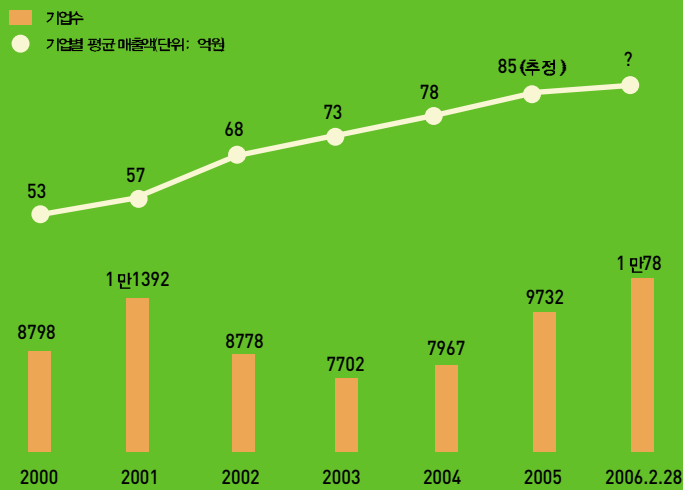


벤처기업의 부활이 시작되고 있다. 벤처기업의 수가 3년 7개월 만에 다시 1만 개를 돌파했다. 중소기업청은 25일 9월 현재 통계자료로 확인한 결과 수가 1만7천7백여 개를 돌파했다고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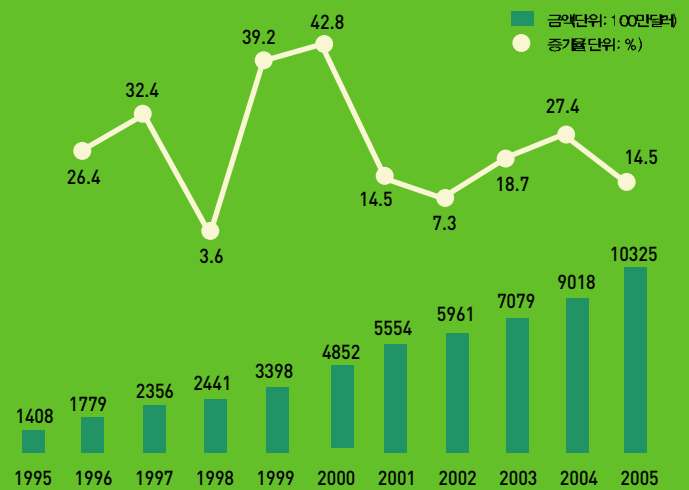
1998년 벤처창업자가 도입된 뒤 벤처기업 수는 2004년 4월 처음으로 1만 개를 돌파하고 같은 해 5월 1만2천여 개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벤처 자본이 부족해서 벤처기업 수는 계속 1천여 개를 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2004년 11월과 2005년 1월 2만 개 이상 돌파에 다시 한차례 도전했다고 통계청은 밝혔다.

벤처 기업총액 역시 3년 7개월 만에 처음으로 1천억 원을 돌파한 결과 일평균 1억 2천만 원의 규모로 집계됐다.



벤처기업 증가추이 (자료:중소기업청)



벤처기업 수출추이 (자료:무역협회)

380대까지 떨어졌지만 2005년 말 700선을 넘어서며 호조를 보였다. 최근엔 670대를 유지하며 벤처 자금 잦 줄로서 벤처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 지난해 코스닥 상장심사기업의 83%인 63개 기업이 승인을 받았고, 올해 상장심사 청구업체도 이미 10개를 기록하고 있다.

수출 100억달러 돌파 벤처기업의 수출실적이 지난해 처음으로 100억달러를 돌파했다. 1995년 14억달러에 불과했던 벤처기업 수출실적은 2001년 55억달러, 2004년 90억달러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왔다. 그리고 2005년에 전년 대비 14.5%가 증가한 103억 25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매년 3~42%의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국내 전체 수출에서 벤처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1995년 1%에서 지난해 4%로 올라섰다.

벤처기업 수출 1위 업체인 휴맥스의 수출 실적은 지난해 전년 대비 2억달러 이상 증가한 5억 9260달러를 기록했고, 지난해 나스닥에 직상장한 픽셀플러스는 2005년 매출 450억원 가운데 80%인 360억원을 수출을 통해 올렸다.

다시 오는 '벤처의 봄'

코스닥 호조에 신보 등 투자금 대거 늘려 ... 펀드결성률도 경증

돈이 벤처로 돌아오고 있다.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벤처캐피탈에 투자금이 대거 몰리고, 새롭게 문을 여는 벤처투자회사도 눈에 띄게 늘고 있다.

그동안 보증업무만 해온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도 올해는 벤처 투자금을 크게 늘려잡고 투자 기지개를 켜고 있다.

이처럼 시중의 부동자금이 벤처로 몰리고 있는 것은 작년부터 코스닥시장이 호조를 보이면서 벤처 투자금의 성과가 높아지고 회수가 손쉬워졌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후략> (헤럴드경제 3월 7일자 1면)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발 벤처캐피탈에 대한 출자도 지난해 말 6651억원을 기록하며 6년 만에 증가세를 나타냈다. 벤처기업의 주식·전환사채에 투자된 금액은 6년 전 2조 75억원대까지 치솟았지만, 그 후 5639억원대까지 떨어졌었다.

정부가 1조원을 목표로 조성 중인 모태펀드가 3118여억원을 기록했고, 국민연금관리공단 투자조합과 한국통신사업자연합이 각각 1300~1400억원대를 출자했다.

KTB네트워크·산은캐피탈·기보캐피탈 등 신기술산업금융회사에서 투자한 금액도 지난해 4300억원으로 늘었다. 기업·금융권에서도 투자가 활발해 산업은행의 경우 2500억원 인판을 벤처기업에 투자하고 있다.

신생벤처의 현재진행형 성공 스토리

멀티미디어 반도체 개발을 책임지는, 부리멀티미디어



김대성 대표는 삼성전자 재직 중에 이미 VCD 칩을 포함한 멀티미디어 칩을 개발했다. 이를 바탕으로 MCS로직을 공동창업하였고 MP3 관련 제품을 개발하면서 음성 지원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되 2004년 1월, 부리멀티미디어를 창업했다. 멀티미디어 기능의 반도체 개발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는 부리멀티미디어는 설립 초기부터 임직원 구성에 최대 역점을 두어 현재 8명의 구성원 대부분이 반도체 개발에 10년 이상의 경험을 갖고 있다. 작년 11월 코엑스에서 열린 'IT-SoC2005 전시회' 참가를 시작으로 4월에는 홍콩에서 열리는 'China Sourcing Fair'에, 6월에는 '국제 임베디드 전시회'에 참가할 계획을 세우는 등 회사와 제품홍보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최근 MP3 파일 수준만큼 깨끗한 음성을 지원하는 마이크로컨트롤유닛 개발에 성공했으며, 올 하반기에는 3D 지원 칩을 선보일 예정이다.

김대성 대표는 삼성전자 재직 중에 이미 VCD 칩을 포함한 멀티미디어 칩을 개발했다. 이를 바탕으로 MCS로직을 공동창업하였고 MP3 관련 제품을 개발하면서 음성 지원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되 2004년 1월, 부리멀티미디어를 창업했다. 멀티미디어 기능의 반도체 개발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는 부리멀티미디어는 설립 초기부터 임직원 구성에 최대 역점을 두어 현재 8명의 구성원 대부분이 반도체 개발에 10년 이상의 경험을 갖고 있다. 작년 11월 코엑스에서 열린 'IT-SoC2005 전시회' 참가를 시작으로 4월에는 홍콩에서 열리는 'China Sourcing Fair'에, 6월에는 '국제 임베디드 전시회'에 참가할 계획을 세우는 등 회사와 제품홍보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최근 MP3 파일 수준만큼 깨끗한 음성을 지원하는 마이크로컨트롤유닛 개발에 성공했으며, 올 하반기에는 3D 지원 칩을 선보일 예정이다.

글로벌 인터넷 서비스를 이끄는, 이인프라 네트워크



싸이월드를 창업했던 이인프라 네트워크의 형용준 대표는 인터넷 검색 기업에서 만난 최광용 씨와 김봉술 씨 등의 동료들과 함께 2005년 봄, 이인프라 네트워크를 창업했다. 글로벌 인터넷 서비스를 주력으로 하는 이인프라 네트워크는 개인 동영상 커뮤니티인 beedeo.com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사용자들이 별때처럼 물려와 꿀처럼 유익한 영상 콘텐츠를 생산한다는 의미로 지은 beedeo.com은 사회적 네트워크를 접목하여 개인 동영상을 올린 사람과 동영상 속에 출연한 인물들, 그리고 타인의 동영상을 리뷰한 사람들과 자신이 어떤 촌수관계인지를 보여주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인프라 네트워크는 인터넷 신규 서비스의 경우 영문 시장이 가장 크다는 판단 아래, beedeo.com을 영문 서비스로 먼저 오픈했다. 현재 국가별로 운영 파트너를 모집하고 있으며 일본, 대만, 중국, 독일의 후보 파트너업체들과 협상을 벌이고 있다.

유비쿼터스를 선도하는, CS정보기술

CS정보기술은 HW개발 분야에서 일하던 최민호 대표와 SW개발 분야에 있던 송정훈 이사가 손을 잡고 2004년 8월에 창업한 벤처기업이다. 창업 1년 6개월의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CS정보기술은 급변하는 유비쿼터스 시대에 발맞춰 IT컨설팅, SM(Service Management), SI(System Integration), 자동화, U-Biz 솔루션 개발을 수행하는 전문 IT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또한 전문지식과 우수한 솔루션, 우수한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CS정보기술은 지난해 9월 중소기업청 신기술 벤처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웹 보안시장의 무서운 신인, 모니터랩



정보 보안 분야에서 사업기획과 마케팅 일을 담당했던 이광후 대표는 보안제품을 개발하던 회사 동료와 뜻을 같이

해 2005년 2월 모니터랩을 창업했다. 모니터랩은 웹 애플리케이션 보안 제품인 WEB INSIGHT를 올해의 주력 제품으로 선정했다. 작년 9월 출시 이후 이미 14개의 국내 공공기관 및 기업 고객을 확보하고 있어, 올해 상반기 결산 시점을 전후로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라는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또한 2005년 10월 대한민국 창업대전에서 창업기업으로서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중소기업청장 표창을 수상한 모니터랩은, 협회에서 주관하고 중국 북경에서 열린 'BeSeTo IT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에 참가해 현지 중국기업으로부터 많은 관심과 성과를 얻기도 했다.

우수한 디스플레이 기술을 세계에 알린, 쓰리디아이에스



쓰리디아이에스는 2005년 3월, 대학에서 3D를 전공한 장선주 대표가 창업한 차세대 디스플레이를 선도하는 벤처기업이다. 쓰리디아이에스의 전문 인력은 관련분야 석박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동안의 연구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초대형 무안경식 3차원 입체영상 시스템을 국산화하고 상용화시켰다. 특히 60인치급 3DIS-60S의 3차원 입체영상 기술은 고화질의 동영상을 최대 90cm 크기로 감상할 수 있게 했다. 또한 3D 디스플레이의 한계로 여겨졌던 실외에서의 뚜렷한 입체영상을 구현했고, 3D 영상을 감상할 때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어지러움과 눈의 피로도 완벽하게 해결했다. 그 외 웹기반 3D 입체영상 화상회의 시스템과 다중인식 유비쿼터스 테이블 등 차세대 디스플레이에 관련한 독자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지난 '2005 APEC Korea IT 전시회'에서 벤처기업으로는 유일하게 교육인적자원부와 산업자원부가 공동으로 운영한 '차세대 E-learning관'을 총괄 전시하고 협찬했다. 전시회에서 선보인 차세대 디지털 매직미러 시스템과 실시간 화상회의 시스템 기술 등은 각국 정상 및 정부 수행원에게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에 지난해 12월, 국내 E-learning 기술의 우수성을 홍보한 성과를 인정받아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했다.